의료공백에…간호사도 응급환자 약물 투여·심폐소생술

종합병원·전공의 속한 수련병원 간호사, 숙련도·자격별 범위 설정
전남대병원, 대책회의 열고 이행 방안 검토…조선대병원 논의없어
간호계 환영 속 "의료사고 보호책 없다"…의사협 "불법행위 양성화"

전공의 집단행동이 17일째 이어지고 있는 7일 광주시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복지부 간호사 업무 보완 지침 오늘 시행

광주지역을 비롯한 전국 수련병원 간호사들이 8일부터 응급실에서 그동안 의사만 할 수 있었던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투여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해 심각한 의료공백이 생기자 대응 조치로 정부가 의사의 일부 업무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데 따른 것이다.

지역 간호사들은 환영하면서도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호대책이 없다"고 지적했고, 의료계는 "정부가 불법 의료행위를 양성화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이날 비상진료 대책회의를 열고 정부의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조선대병원은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

이날 정부는 의료 공백에 따라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보완지침에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와 간호사의 진료 지원 업무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되는 이번 지침에는 간호사를 숙련도 및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가 포함됐다.

지침상 간호사의 업무 수행 기준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이나 응급 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간호사는 중환자를 대상으로 기관 삽관, 뇌척수액 채취 등의 의료행위까지 가능하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 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각 의료기관장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단, 각 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를 전가 또는 지시해선 안 된다. 관리·감독 미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지도록 했다.

그동안 간호인력의 자격·업무범위 명확화와 처우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간호법을 요구했던 지역 간호사들은 "일단 환영하지만, 혼란이 예상된다"고 난감해 하고 있다.

의료사고가 났을 때 관건이 되는 책임 소재 때문에 병원과 간호사들 모두 정부의 안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책임 소재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으면 정부의 바람과 달리 현장 착근은 요원할 것이라는 게 간호사들의 우려다.

정새롬 조선대병원 보건의료노조 지부장은 "아직 논의된 것이 많이 없지만 법적으로 간호사들에 대한 보장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의사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넘어온다면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료사태 장기화에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각종 정책을 정부가 내놓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와 가족들의 피해는 커지고 있다.

광주지역 맘카페에는 "2차병원에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아 화순전남대병원에 초진으로 접수하려 해도 초진 예약을 받지 않아 어찌 해야할 지 모르겠다"며 "환자를 두고 정부와 의사들이 싸우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진료지원) 간호사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면서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정부의 시범사업에 반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18조사위, 계엄군 성폭력 조사결과 즉각 공개를"

광주·전남 여성 단체 "검토할 시간 필요"…조사위는 25일 공개 예정

광주·전남 여성 단체들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 보고서를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이하 연합)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진상조사위는 오는 31일까지 조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하기로 했는데, 정작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고서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은 "진상조사위가 보고서 공개를 늦추거나 발표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은 보고서를 검토할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성폭력 보고서에 대해서도 이미 공개한 보고서와 동일한 검토 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라는 특성상 전면공개가 안된다고 하면 최소한 여성단체나 광주시, 광주시의회 5·18특위, 2022년 진상조사위 연구용역에 참여한 자문위원 등에게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2월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7개의 직권조사 과제 중 15개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다.

진상조사위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 '탈북자의 북한특수군 광주일원 침투 주장' 사건 보고서를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후 오는 25일 공개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지난 겨울, 가장 따뜻하고 비 많았다

광주·전남 평균 기온 5.1도·강수량 239.5㎜ '역대급'

지난 겨울 광주·전남은 기상관측 이래 가장 따뜻하고 비가 많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2023년 겨울철 기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겨울철 3개월(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동안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5.1도를 기록했다. 평년(3.0도)보다 2.1도 높았으며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온도다.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겨울철 평균기온 2019년 4.8도였고 다음은 2006년 4.2도였다.

평균 최고기온은 9.4도(평년 7.8도), 평균 최저기온은 1.1도(평년 영하 1.3도)로 역대 최고 온도였다.

지난해 12월 8~10일 3일 동안은 광주·전남 곳곳에서 12월 일최고기온 극값을 경신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12월 8일 완도 20.3도, 9일 순천 20.5도, 10일 광주 20.3도 등이 대표적이다.

겨울철 강수량도 239.5㎜에 달해 역대 가장 많았던 1988년 228.9㎜를 갈아치웠다. 평년(106.3㎜)에 비해서는 2.25배 많은 양의 비가 왔고, 강수일수 또한 37.7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반면 겨울철 눈 일수는 11.3일로 역대 두 번째로 적었으며, 평년(18.6일)에 비해 7.3일 짧았다.

기상청은 겨울철 기온이 높고 눈보다는 비가 많이 왔던 이유로 평년 대비 따뜻하고 습한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자주 유입되고,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점을 꼽았다.

기상청은 "겨울철 북인도양의 해수면온도가 높고 대류가 활발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상층 고기압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대기파동이 전파되면서 우리나라 동쪽에서 고기압성 순환이 생겨 우리나라로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청렴교육 실현' 다짐

'청렴 스타트' 선포식 개최

광주시교육청 전 직원들이 청렴 선언서를 작성하는 등 청렴교육 실천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7일 월례 회의에서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스타트(START)' 선포식을 열고 청렴한 광주교육 실현을 공표했다.

이날 선포식은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를 넘어 공감(Sympathy)·신뢰(Trust)·적극(Active)·존중(Respect)·투명(Transparent)한 교육행정 실현이라는 점을 되새기기 위한 자리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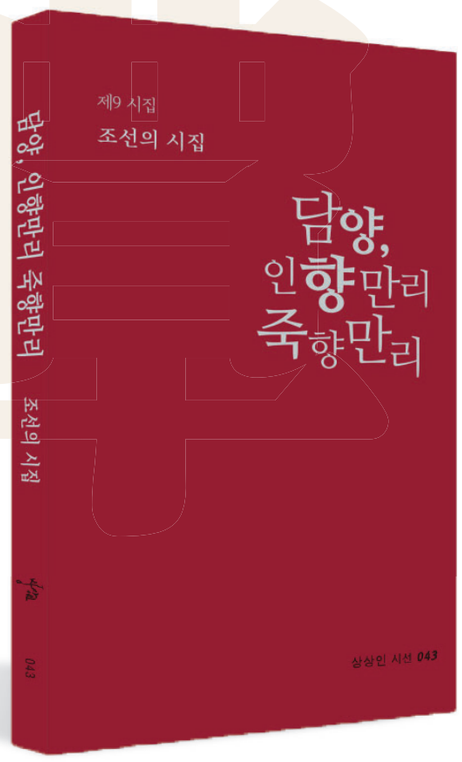
선포식과 함께 '진정한 청렴이 무엇인지 스스로 생각해보자'라는 의미를 담아 청렴이란(卵·청렴달걀) 나눔 행사도 가졌다.

전 직원이 청렴 선언서의 주요 내용을 직접 작성하며 공직자로서 청렴한 마음가짐과 업무 자세를 스스로 점검했다. 직원들은 앞으로 청렴을 모든 업무 처리의 첫번째 기준으로 삼아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기로 서약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올해를 종합청렴도 1등급 도약의 해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전국 시·도교육청 가장 낮은 4등급을 기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지 은 이 | 조선의
펴 낸 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헌사가 아닐까."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촛불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